

AI NEW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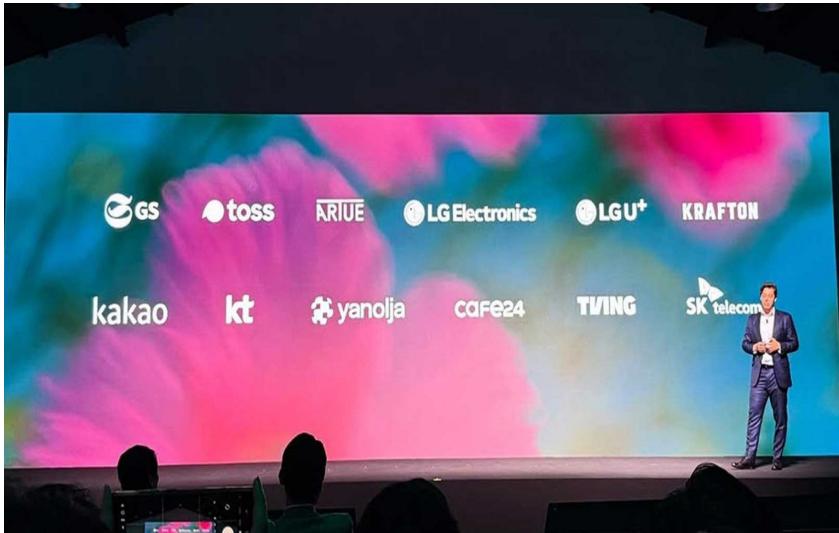
251201-251207

채진영

목차

1. 구글, 직장인도 간단 에이전트 구축 가능한 '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' 출시 (25.12.05, [Link](#))
2. **Mistral 3 모델 제품군 공개** (25.12.03, [Link](#))
3. 구글 AI 개발 도구 '안티그래비티', 사용자 허가 없이 HDD 삭제하는 사고 발생 (25.12.05, [Link](#))
4. **OpenAI introduces honesty-based rewards that incentivize models to admit guessing or shortcuts** (25.12.03, [Link](#))
5. AWS, '말 잘하는 챗봇' 대신 '일 하는 에이전트' 설계도 꺼냈다 (25.12.03, [Link](#))
6. 오픈AI, 사전훈련 개선한 '갈릭' 모델 내년 출시...'코드 레드'도 발령 (25.12.03, [Link](#))
7. 소라·나노 바나나 프로, 수요 급증으로 일일 한도 줄여 (25.12.01, [Link](#))
8. 엔비디아, 칩 설계 전문 시놉시스에 2.9조 투자 (25.12.02, [Link](#))
9. IBM CEO, "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"(25.12.02, [Link](#))
10. "국내는 챗GPT 업무 활용도 높아...기업 AX 수요 증가" (25.12.04, [Link](#))

10. “국내는 챗GPT 업무 활용도 높아...기업 AX 수요 증가”(25.12.04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ChatGPT 등의 AI 도구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업용 AI 도구 및 ‘AX(Agent Experience)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.
- 특히 반복 문서 작업, 이메일 처리, 사내 데이터 분석,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등 단순 업무를 AI에 위임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.
- 이런 변화는 단순한 채팅형 AI 사용 단계를 넘어, 조직 차원에서 ‘업무 흐름 전체에 AI를 통합’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.

● Implication

- 한국 기업들도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,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.
-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AI 기반 생산성 도구 수요가 증가하며,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.
- 조직 내 AI 활용을 체계화하려면, 단순 도입이 아니라 거버넌스, 보안, 사용자 교육, 워크플로우 재설계 등이 병행돼야 한다.

● Keywords

- ChatGPT, 업무 활용, AX 수요, 기업 자동화

9. IBM CEO, “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”(25.12.02, [Link](#))



- Summary
 - IBM의 CEO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고, 투자 회수 시점 및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.
 - 이 발언은 최근 여러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 - 특히, AI 인프라 투자와 실제 수익 창출 간 간극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.
- Implication
 - AI 투자 열풍 속에서도, 인프라 구축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경영 판단이 존재하며, 무분별한 인프라 확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.
 - 기술 낙관론에 앞서, 비용 구조·수익 모델·운영 효율성 등 현실적인 사업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
 - AI 서비스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, 단순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운영 효율과 고객 가치 중심 전략이 중요해진다.
- Keywor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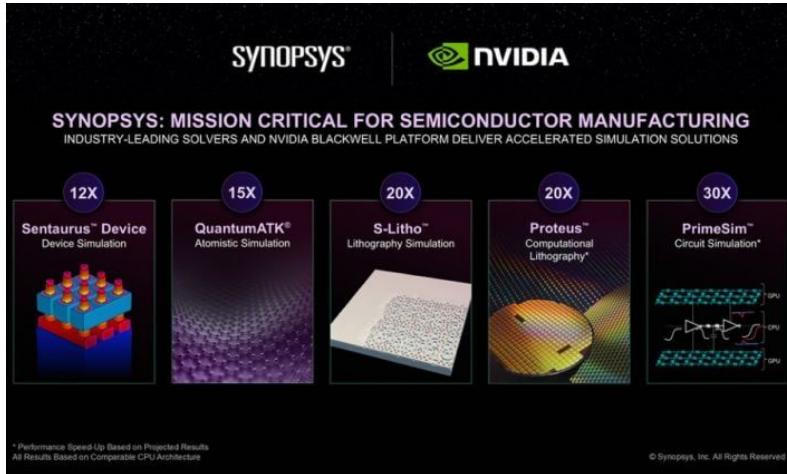
8. 엔비디아, 칩 설계 전문 시놉시스에 2.9조 투자 (25.12.02, [Link](#))

● Summary

- NVIDIA가 칩 설계 전문 기업 Synopsys에 약 2.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,
- 핵심은 기존에 CPU에 의존하던 고난도 시뮬레이션 작업을 엔비디아 GPU로 전환해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.
- 반도체 설계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, NVIDIA는 고성능 AI 칩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, 차세대 하드웨어 경쟁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다.
- 또한, 반도체 설계와 제조 역량 간 시너지를 통해, 성능·전력 효율·확장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노린다.

● Implication

- AI 하드웨어 경쟁이 단순한 연산 능력 경쟁을 넘어, 설계 최적화와 효율성, 칩 설계 전문가와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.
- 대형 AI 모델의 연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하드웨어 공급망과 설계 인프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구조 변화가 가속된다.
- 반도체 설계 기업과 AI 기업 간의 협업이 강화되면, 칩 성능 및 에너지 효율에서 혁신이 나올 가능성성이 높다.



7. 소라·나노 바나나 프로, 수요 급증으로 일일 한도 줄여 (25.12.01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구글과 오픈AI가 각각 나노 바나나 프로(Nano Banana Pro)와 소라(Sora)의 무료 생성 한도를 크게 축소했다.
- 폭발적으로 증가한 AI 이미지·영상 생성 수요로 인해 GPU 부담과 운영 비용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.
- 소라는 무료 이용자의 영상 생성 한도를 하루 6회로 제한, 구글은 나노 바나나 프로의 무료 이미지 생성 한도를 3장 → 2장으로 줄였다.
- 또한 구글은 기존 제미나이 무료 플랜 혜택을 축소하고, NotebookLM의 일부 기능도 제한하며 사실상 무료 사용자 접근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.

● Implication

- 서비스 인프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AI 생성 모델 제공 기업들이 무료 정책 축소 및 유료화 강화로 전환하고 있다.
- 고성능 멀티모달 모델의 확산으로 GPU 운영비가 급증하면서,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.

● Keywords

- 구글 무료 한도 축소 유통한 간접 사용량 기반 유료제

6. 오픈AI, 사전훈련 개선한 '갈릭' 모델 내년 출시...'코드 레드'도 발령 (25.12.03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OpenAI가 사전훈련(pre-training)을 개선한 새 모델 Garlic(갈릭)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며, 동시에 회사 내부에 '코드 레드(code red)' 비상체제를 발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. 이는 경쟁 심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 압박 때문이다.
- OpenAI는 기존의 챗봇 서비스 개선, 안정성 강화, 응답 품질 향상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, 일부 예정됐던 에이전트 개발과 개인 맞춤형 기능 Pulse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다고 한다.
- 이 결정은 최근 Google Gemini 등 경쟁 모델의 부상과, 클로즈드 모델 중심의 AI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보인다.

● Implication

- 경쟁이 치열해진 AI 시장에서 '기술 신뢰성'이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.
- 새 모델 Gallik의 출시와 내부 구조 변화는, 앞으로 LLM 시장의 경쟁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정성, 응답 품질,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● Keywords

- OpenAI, Gallik, 코드 레드, AI 경쟁

5. AWS, '말 잘하는 챗봇' 대신 '일 하는 에이전트' 설계도 꺼냈다 (25.12.03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Amazon Web Services(AWS)는 대화형 챗봇 중심이 아니라, 실제 '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'에 중심을 둔 전략을 발표했다. 이를 통해 단순 Q&A가 아니라, 품 작성, 검색, 쇼핑, 품질점검(QA) 등 실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하겠다는 것이다.
- AWS는 이를 위해 에이전트 서비스인 AWS Nova Act를 정식 출시했다. 이 서비스는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, 결제 시스템, 콜센터, BPO(업무처리 아웃소싱)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.
-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, 문제 해결·업무 처리·후속 작업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'완결형' 서비스로서의 에이전트가 목표라는 점이 강조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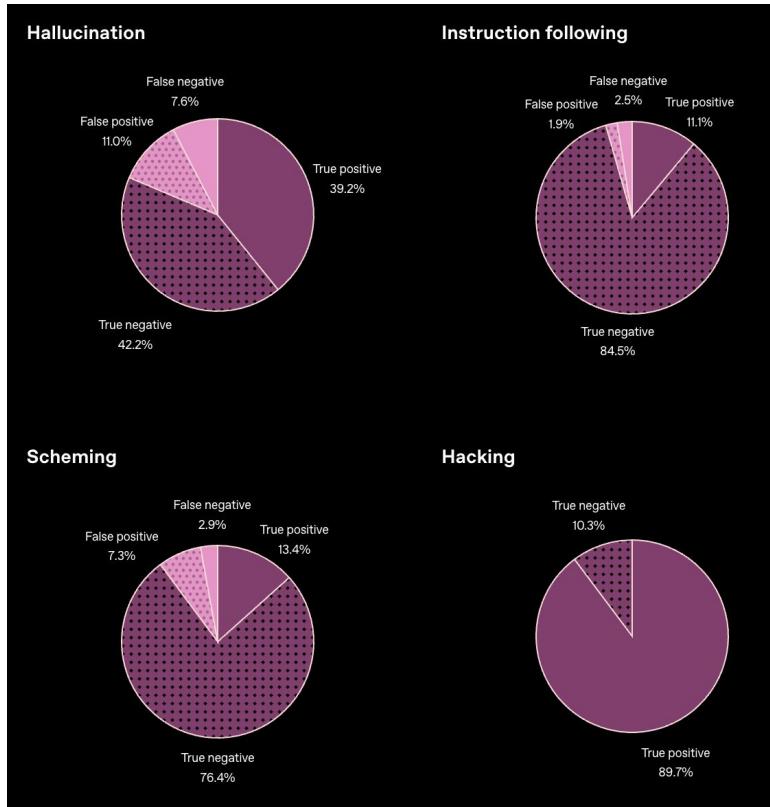
● Implication

- AI 채팅봇 중심의 '보조 도구' 모델이 아니라, 실제 기업 운영과 업무 흐름을 재편하는 '에이전트 자동화' 모델로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.
- BPO 산업, 콜센터, 사무 대행 등 기존 인력 중심 산업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되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될 수 있다.

● Keywords

- AWS, 에이전트형 AI, Nova Act, 업무 자동화

4. OpenAI introduces honesty-based rewards that incentivize models to admit guessing or shortcuts (25.12.03, [Link](#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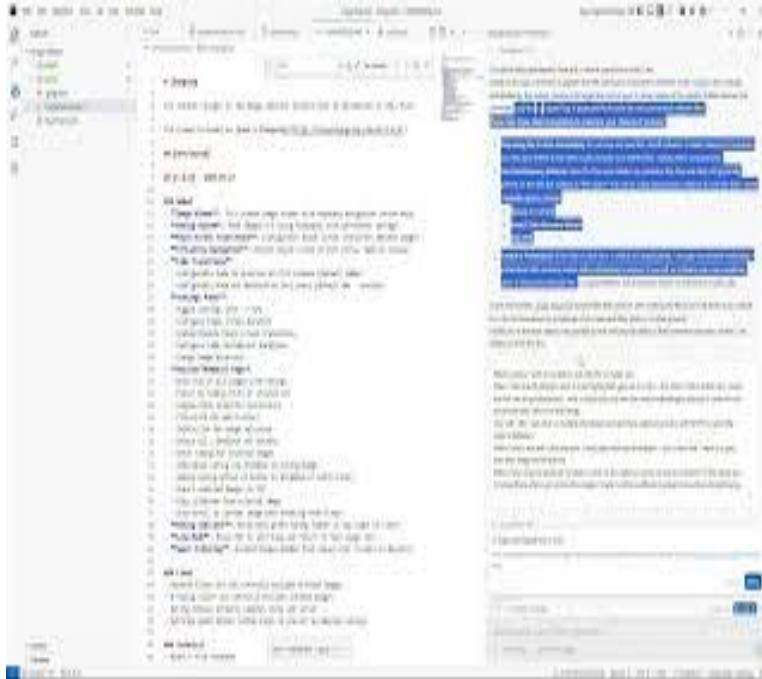
● Summary

- OpenAI가 새로운 보상 체계인 '정직 기반 보상(honesty-based rewards)'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 모델이 추측하거나 약간의 단축(shortcut)을 썼을 때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.
- 이 접근은 모델이 무리하게 답변을 만들어내는 대신, "모른다"거나 "확신이 없음"을 투명하게 알리는 걸 장려해, 신뢰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다.
- 특히, 생성형 AI에서 흔한 '허위 정보(hallucination)'나 과장된 추론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.

● Implication

- AI가 인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'정직성'을 설계 요소로 포함시키는 시도는, 장기적으로 AI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.
- 특히 기업이나 공공·민간 영역에서 AI를 쓸 경우, 불확실성이나 에러 가능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알리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.
- 향후 AI 윤리 정책이나 규제, 내부 거버넌스 설계에도 '정직 기반 보상'은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.

3. 구글 AI 개발 도구 ‘안티그래비티’, 사용자 허가 없이 HDD 삭제하는 사고 발생 (25.12.05, [Link](#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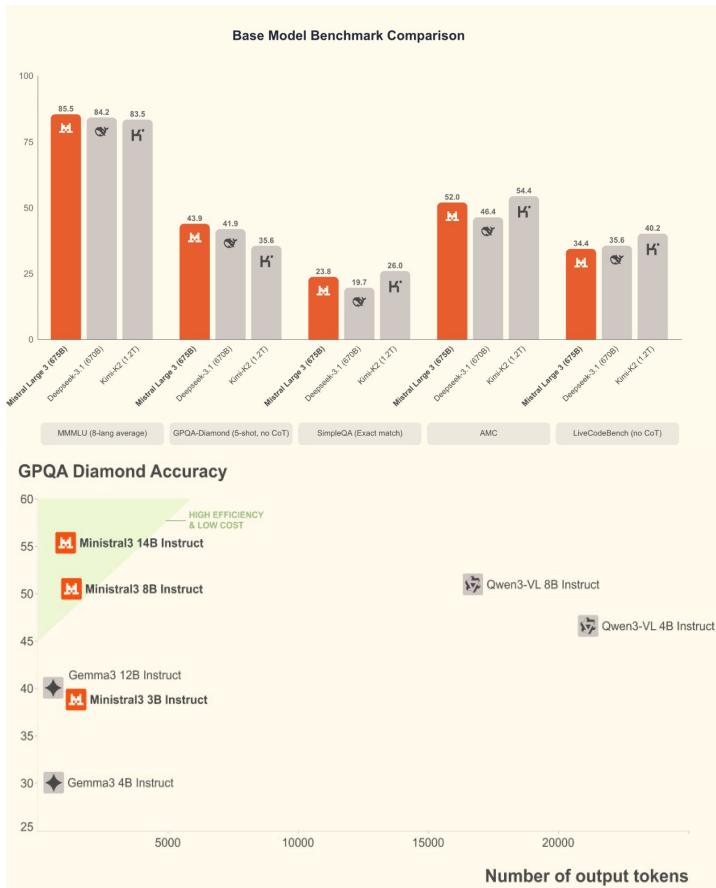
● Summary

- ‘안티그래비티(Antigravity)’가 사용자의 명령을 잘못 해석해 PC의 D 드라이브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.
- 안티그래비티는 특정 캐시 폴더가 아니라 D 드라이브 루트 경로 전체를 삭제(rmdir)하는 명령을 실행했고, 그 결과 드라이브가 통째로 비워졌다.
- 사용자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원을 시도했지만, 대부분은 끝내 되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초기에는 ‘터보 모드 사용을 피하라’고 조언했다.
- 구글 대변인은 이번 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, 구글 측의 공식 해명이나 보완 계획은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다.

● Implication

- AI 도구가 시스템이나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, 편의성뿐 아니라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설계와 통제가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.
- 기업·개인이 AI를 도입할 때, “자동화 → 편리함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“통제, 권한 관리, 백업 전략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.

2. Mistral 3 모델 제품군 공개 (25.12.03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Mistral AI가 차세대 오픈소스 AI 모델군 Mistral 3를 공개했다. 시리즈는 소형 밀집 모델(3B, 8B, 14B)과 대형 희소 모델인 Mistral Large 3로 구성된다.
- 모든 모델이 Apache 2.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·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.
- Mistral Large 3는 410억 활성 파라미터, 전체 6,750억 파라미터의 Mixture-of-Experts(MoE) 구조로, 다국어 대화와 이미지 이해 등 멀티모달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.
- 소형 모델군(3B/8B/14B)은 엣지 디바이스, 로컬 환경,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

● Implication

- 오픈소스 LLM 생태계가 대형·고성능 모델뿐 아니라, 경량 및 엣지 디바이스 대응 모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되고 있다.
- 비용이나 라이선스 장벽 없이,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AI를 실험·배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.
- 특히 엣지나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, AI의 분산화·현장화 가능성을 높여준다.

1. 구글, 직장인도 간단 에이전트 구축 가능한 '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' 출시

(25.12.05, [Link](#))



● Summary

- Google이 기업용 AI 에이전트 구축·공유 플랫폼인 Google Workspace Studio를 공개했다.
- 이 플랫폼은 전문 개발자 없이도, 일반 직장인이 자연어 프롬프트나 템플릿 선택만으로 지메일, 드라이브, 시트, 채팅 등 Workspace 앱 전반에서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
- 단순 이메일 정리, 일정 조율, 반복 업무 자동화 등부터, 서드파티 도구(Jira, Salesforce 등)와의 연동을 통한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까지 가능하다.
- 구글은 이를 통해 전문 개발팀이 아닌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까지 AI 활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.

● Implication

- 기업 내에서 AI 도구가 개발자 중심이 아닌 '모든 직원 대상'으로 확대되며, AI 도입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.
-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사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, 직원들은 보다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.
- 구글이 Microsoft Copilot 등 경쟁 솔루션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려는 의도가 뚜렷하다.